

“성경은 무오하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

美 성인 33% 응답 ... 미국성서공회 보고서 공개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에는 일부 상징이 있어서 이를 문자 그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바나그룹이 ‘성경에 대한 인식과 통찰’, ‘도덕성 하락’, ‘사회적 영향’, ‘비영리단체들을 상대로 한 성경 기부 수준’ 등을 조사한 ‘미국성서공회 2015년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에 있는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성경에 대한 5가지 인식’에 대해 나이가 많을수록 성경을 문자 그대로보다는 (일부 상징으로

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보고서는 “복수 응답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며, 오류가 없다고 답했다. 이들 중 일부는 성경 구절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응답자가 2014년 30%에서 의미심장한 증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성경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드시 문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22%였다. 13%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믿지만, 일부 사실적인 오류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19%는 “성경은 이야기와 교훈을 담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고, 11%는 “성경은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은 아니지만, 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을 이해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2%는 성경에 대해 자신들의 인식과 일치하는 문항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나이가 많은 성인들일수록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젊은 세대들일수록 성경을 교훈을 주는 책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해진 기자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에 조종곤 목사

(사우스베이선교교회)



조종곤 총회장



황하균 부총회장

“성결교회로 성결케 하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36회 미주성결교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조종곤 목사(사우스베이선교교회)가 당선됐다. 지난 회기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그는 총회장에 단독 출마했기에 투표 없이 총회원들의 박수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상복 목사(LA 연합선교교회), 황하균 목사(뉴욕 소망성결교회), 최준호 목사(페서디나 로고스교회)가 출마했다. 처음 투표에서는 각각 46표, 50표, 21표를 획득해 3분의 2 득표자가 없

었기에 재투표가 이뤄졌다. 여기서 최준호 목사가 후보를 사퇴했고 이상복 목사와 황하균 목사 간에 2차 투표를 실시했으나 역시 55대 59로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어 당락을 결정짓지 못했다. 3차 투표는 총회규정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데, 여기서는 49대 70으로 황하균 목사가 승리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오레곤선교교회 이광천 장로가 단독 입후보해 투표 없이 회원들의 박수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3면에 계속



KCCD가 한인들을 포함한 아태계 크리스천의 라이팅 커뮤니티 서밋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켄 콩 디렉터(사우스이스트 아시아인 캐털리스트), 정영희 목사(월서연합감리교회), 임혜빈 회장(KCCD), 폴 쉐 고문(백악관 AAPI 이니셔티브), 박종대 목사(KCCD 이사장), 데보라 곽 씨(은행인), 아나카 여 디렉터(빅미션)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워싱턴DC에서 라이팅 커뮤니티 서밋 KCCD “한인들 참여 독려”

도 명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서밋에서도 리셉션 행사, 기도회와 예배, 의회 방문,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된다. 그 중의 백미는 서밋의 결과물에 기초해 백악관 내에서 이뤄지는 브리핑 시간이다. 이 브리핑에는 행정부의 주요 공직자들도 참여하기에 아시아인 크리스천들의 여론을 미국 최고위직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KCCD는 지난 7회 행사에서 처음 백악관에 초청됐으며 올해도 초청됐다. KCCD의 임혜빈 회장은 “올해는 좀더 심도있게 아시아인 커뮤니티의 현안들을 백악관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서밋에서는 멜리사 로저스(백악관 신앙정책실장)를 비롯해 상무, 사회복지, 농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스피커로 나서며 임 회장도 아태계를 대표해 메시지를 전한다.

임 회장은 “경제 발전, 종교 단체와 커뮤니티의 협력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이민 개혁, 정신 건강, 노동

착취 등 사회 정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이 행사에 관해 “아태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목소리가 이 사회 안에서 간과되곤 한다. 올해 행사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 사회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 임 회장은 한인 청년들이 대회에 참여해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맥을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KCCD는 청년 대사(Young Ambassadors)를 구성해 이 서밋에 15명의 한인 청년들이 참여한 바 있다.

올해 행사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DC에 소재한 힐튼 가든 인(Hilton Garden Inn)에서 열리며 4월 17일까지 등록할 시 225달러, 그 후에는 250달러의 비용이 든다. KCCD나 www.aapifaithalliance.org에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 213-985-1500

김준형 기자

아시아인 크리스천 목소리 결집해 백악관으로

올해도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가 워싱턴DC에서 제8회 라이팅 커뮤니티 서밋(Nation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을 개최한다. 주제는 “Shining Out Light- Building Our Leadership

and Future Together”로 결정됐다. 이 서밋은 교회 지도자는 물론 주류사회 정치인, 재계 인사들이 참여해, 기독교 가치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논의하는 행사로, 현재는 아시아와 태평양 제

도(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출신 크리스천들이 주류사회와 네트워킹을 맺고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서밋에는 마이크 हु다 의원, 마크 김 의원, 주디 추 의원 등 정치인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은 성경적 효

효사랑선교회 글짓기 그림 공모전 열린다



효사랑선교회의 회장 김영찬 목사와 글짓기 부문 심사위원장 임영호 목사(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직전회장), 그림 부문 심사위원장 윤덕기 회장(아리랑아트)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효사랑선교회가 제3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으로 한인 사회에 효 문화 보급과 정착에 앞장선다. 효사랑선교회 회장 김영찬 목사는 “올해 공모전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끔 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다민족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배에 돛을 단 것과 같다.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적이며 건강한 효를 배우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요한 유산은 바로 성경적 효”라고 강조하며 많은 이들의 응모를 요청했다. 이 공모전은 초등부(1-5학년), 중등부(6-8학년), 고등부(9-12학년), 장애인 청소년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로 결정됐다. 글짓기는 한영모 두 가능하며 레터 3장 이상, 글자 사이즈는 12폰트다. 그림은 크레파스, 수채물감, 유채물감 등 사실상 자유롭다. 도화지는 초등부는 14X17(S), 중고등부는 18X24(L)를 사용하면 된다.

글짓기 부문의 임영호 심사위원장은 “문학성, 독창성, 문법적 정확성에 더해 자신의 체현을 기독교 신앙으로 잘 풀어냈느냐가 심사 기준”이라 밝혔다. 그림 부문의 윤덕기 심사위원장은 “예술성과 구도, 채색 등과 함께 창의성과 효에 대한 표현력을 본다”고 말했다.

작품은 우편이나 방문(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90621)으로 5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글짓기의 경우는 이메일(hyosarangus@gmail.com)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상식은 6월 13일 거행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이 있지만 대상에겐 노트북, 최우수상에겐 삼성 태블릿, 우수상에겐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주어진다. 문의) 714-670-8004 김준형 기자

OC 지역 다양한 부흥 행사

HYM의 제32회 청년연합집회가 18일과 19일 저녁 7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송민우 목사(에리조나 등대교회)를 강사로 열린다. 이어 25일 저녁 7시에는 나침반교회에서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의 강사는 OC교협 회장 김기

동 목사가 선정됐다. 한편, 17일부터 19일까지는 OC교협 주최로 영적 대각성 전도집회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신웅 목사를 초청해 열린다. 17일에는 오후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 18일에는 오후 7시 오렌지중앙성결교회, 19일 주일에는 오후 4시 30분 나침반교회에서 각각 집회가 열린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내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남가주동신교회 백정우 담임목사 위임

남가주동신교회의 새 담임목사로 백정우 목사가 위임됐다. 손병렬 목사 후임인 제 6대 담임으로 청빙 받은 백 목사는 지난해 12월 7일 교회에 부임했으며 올해 3월 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 서중노회로부터 위임을 허락받았고 드디어 4월 12일 위임예배를 드렸다.

노회장 심상래 목사의 사모로 예배가 시작돼 동부시찰장 서명성 목사가 기도, 노회 서기 강신형 목

사 위임목사 소개, 증경노회장 강신평 목사가 권면, 증경노회장 주혁로 목사가 축사하는 등 교단 관계자들이 식순을 맡았고 축도는 남가주동신교회 원로인 김상구 목사가 했다. 설교는 노진걸 총회장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롬14:7, 15:2)”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백정우 목사는 고신대와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리버티대학교에서 신학 석사(Th.M.)

를 마친 후, 현재는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과정 중에 있다. LA사랑의교회 선임목사를 거쳐 아리조나새생명장로교회에서 담임으로 시무한 바 있다. 문소현 기자



백정우 목사

토기장이교회 2.5세대 단기선교 준비 중



오즘 토기장이교회는 차세대들의 단기선교를 준비하며 성도들이 길거리 찬양 공연과 거러지 세일 등으로 바쁘다.

토기장이교회(담임 임경남 목사)가 오는 6월 말부터 7월 셋째주까지 감비아 단기선교를 준비 중이다. 이번 선교는 교회 내 1.5세 성도들의 자녀인 소위 2.5세 팀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교회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한 그리스도인 리더로 키우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며 이번 단기선교는 리더십, 지혜, 판단력, 추진력, 책임감 등

에 있어서 차세대 훈련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하는 감비아는 이슬람이 뒤덮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곳이다. 토기장이교회는 감비아에서 20년 넘게 사역하는 한병희 선교사를 방문한다. 한 선교사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

도록 어린이들을 입양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슬람은 최대 4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기에 한 가정마다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만 가정 형편에 따라 의식주나 학교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선교사는 입양 사역을 시작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 있다. 현재 약 70여 명이 센터에서 함께 지내며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예배로 하루를 마치고 있다.

교회 측은 “3주 간의 짧은 여정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한다. 지역을 다니며 우리가 준비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센터 내 7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삶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다.

문소현 기자

ILP 소명 컨퍼런스 4월 27일 또감사교회에서 중부교협 목회자 세미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특수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ILP 소명 컨퍼런스가 열린다. ILP는 I Love Pastor의 약자로 교파를 초월해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뜻으로 13년 전 설립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 아래 50명을 모집하며 성도 수 100명 이하, 나이 55세 이하의 목회자들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없다.

이 컨퍼런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며 비행

기 비용 중 500달러와 한국 체류 경비가 지원된다.

컨퍼런스는 4월 27일(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또감사선교교회(1440 N. Spring St. Los Angeles, CA 90012)에서 열리며 강사로는 박종렬 목사(서울 조이머스 교회), 이 조나단 목사(하나크리스천센터),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담임),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 담임)가 참여한다.

문의) 213-384-3356 김준형 기자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는 오는 4월 27일(월)부터 28일(화) 1박 2일간 무리에타 핫 스프링스 캠퍼리 체플 컨퍼런스 센터(Murrieta Hot Springs Calvary Chapel Conference Center)에서 황의영 목사(SBM, 기독교생활운동본부 대표)를 초청해 목회자 세미나를 연다. 주제는 ‘오늘의 교회 진단과 처방’이다. 이 외에도 중부교협은 광복절 기념 연합 성가 찬양제, 여성 목회자 및 목회자 사모를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FIRE CRUSADE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다. 우리는 성령님을 원한다” 토미테니

2015. 4. 25. 7PM
UNITED GENERATIONS CONFERENCE
나침반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 집회 참석자들의 간증들 >>
“이런 생활 25년만에 이런 집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들어 설 때 이미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청년이 교회의 일군이 되었습니다”
“30년 모태신앙의 끝자락...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Facebook.com/Firecrusade

“옥에 갇힌 베드로 구하셨듯 임현수 목사도...”

KCCC 나사렛형제들 주최로 송환 기도회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의 송환을 위한 기도회가 4월 12일 LA에서 열렸다. 임 목사는 1월 31일 이후 북한에 억류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억류된 이유나 현재 신병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임 목사가 억류된 이후 그가 목회하는 캐나다 토론토는 물론, 한국·뉴욕·뉴저지 등 다양한 곳에서 그

의 구명을 촉구하는 기도회나 행사가 열렸지만, LA에서는 그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다만 몇몇 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이 예고됐지만 취소됐었다. 이날 기도회는 KCCC 출신으로 구성된 ‘나사렛형제들’이 주최했다. 임 목사도 KCCC 간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기도회를 인도한 박종술 목사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임 목사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기도회 설교는 임 목사와 46년 지기인 남가주큰빛교회 조현영 목사가 맡았다. 그는 임 목사에게 “순수하고 겸손하며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임 목사는 ‘남북은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한 골육’이라는 생각에서 북한을 도와왔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사건(행12:1-17)을 설교했다. 그는 “이런 역사가 북한에서도 일어날 줄 믿는다”며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임 목사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통 북한이 누군가를 억류해 조사·심문하는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보는데, 이를 넘기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임 목사의 경우 이미 2개월 반이 흘렀다. 저는 임 목사가 3개월이 되기 전에 풀려나길 기도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캐나다·한국·UN 등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도회 참석자들은 KCCC와 나사렛형제들, 그리고 평신도가 다수를 차지했고, LA KCCC의 대표 이영복 목사, KCCC 출신으로 현재 JAMA의 대표인 강순영 목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임 목사가 베드로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길 기도하고, 그의 가족과 시무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또 북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길 간구했다. 김준형 기자

제11차 AG 한미총회, 목회예식서 자체 발간

“위의 것을 찾으라” 주제로 애틀랜타에서 개최



하나님의성회 한미총회가 4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한미총회 제11차 정기총회가 “위의 것을 찾으라(골 3:2)”는 주제 아래 4월 6~9일 애틀랜타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개회예배, 각 지방회별 모임, 사무총회, 목회자 세미나, 총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오순절의 밤, 스톤마운틴 등 관광, 실행위원회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에는 김남수(뉴욕 프라미스교회)·염준용(올랜드 아름다운교회) 목사, 저녁 부흥집회인 오순절의 밤에는 차갑선(기하성 상임운영위원, 시흥순복음교회) 목사가 강사로 등단했다. 한미총회는 임원 임기가 2년이기

에 이번 총회에서는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영어권의 김요셉 전도사와 멜리사 포크 전도사를 목사로 임직했다. 한미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역사적인 목회예식서를 자체 출간했다. 이 예식서는 성찬·침례 등 성례식, 각종 임직 예식, 봉헌 예식, 혼인·장례·추모 예식, 창립·생일·헌아 등 기념 예식 등을 다루고 있으며, 모범이 될 만한 설교 예문도 수록하고 있다. 김재권 총회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센 물결이 현장 교회에 넘실대며 도전하는 요즘 같은 혼탁한 영적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적 예배신학과 그 정신과 가치가 담긴 예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 예식서가 한미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예배와 교역을 더욱 풍요롭게 함은 물론, 교역자로서의 자긍심과 차세대를 위한 청춘어람의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출판위원장 최원규 목사는 “한미총회에서는 예배의 역동성을 뒷받침해 줄, 거룩한 말씀이 살아 있는

예배와 전통 있는 예전과 신학적 기초가 있는 예식을 위한 기준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 예식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하나님의성회 내에는 한국총회와 한미총회라는 두 한인총회가 존재한다. 먼저는 1982년 설립된 하나님의성회 한국지방회를 모태로 하는 한국총회로, 영문명은 Assemblies of God Korean District Council이며 현 총회장은 정영호 목사다. 이 한국총회는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남가주 소재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제3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총회가 바로 이번에 제11차 총회를 개최한 한미총회로, 현 총회장은 김재권 목사이며 영문명은 Assemblies of God Second Korean District Council을 사용한다. 김준형 기자

“성결교회로 성결케 하라”

제36회 미주성결교회 총회 개최돼



총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히티어래디슨호텔과 사우스베이선교회에서 열렸다.

→1면으로부터 계속 조종곤 총회장은 임기 동안 성결교회의 성결을 이뤄가며 미국 내 타 한인교단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LA에 위치한 총회 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그는 총회원들의 화합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황하균 부총회장은 성결교회의 정체성 고양과 행정적 발전을 도모하며 성결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개혁, 발전해 가는 데에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준형 기자

제2회 남가주 어린이 찬양 경연 대회가 “2015 Children in Praise”라는 주제 아래 열린다. 이 협회는 한인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독창, 중창(2-11명 이하), 합창(12명 이상) 등이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되고 연주회 참여 특전이 부여된다. 김준형 기자

교회음악협회 어린이 찬양 경연 대회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동명하이마트 - 서부인삼부품)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wood Ave, Fullerton CA 92833 (아리랑마켓 옆) T.213.453.6624

100%홍삼농축액

| | | | |
|--------------|------|--------------|-------|
| 100g 소비자가격 | \$90 | 240g 소비자가격 | \$185 |
| 2개 구입시 \$150 | | 2개 구입시 \$370 | |
| 3개 구입시 \$250 | | 3개 구입시 \$555 | |
| 4개 구입시 \$330 | | | |

홍삼순액

| | |
|------|-------|
| 30포 | \$120 |
| 60포 | \$180 |
| 90포 | \$255 |
| 120포 | \$320 |

2015년 제3회 미주 ILP 소고명 컨퍼런스

RE-CALLING THE GOSPEL

주제: “다시 복음으로”

강사: 박종렬 목사 / 이 조나단 목사 (서울 조아이스교회 담임) (하나 크리스찬센터 담임)

정종원 목사 / 최경욱 목사 (전 꿈이있는 자유센터, 아이엠티교회 담임) (또 감사 선교교회 담임)

일시: 2015년 4월 27일(월) 8:30am-5:30pm

장소: 또 감사 선교교회 1440 N.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2 Tel. 323.225.9191 / www.ttokamsa.com

참가신청 방법

- 신청서 다운: www.ladchome.com (LA 디사이플교회)
- 신청서 제출: papyrusnam@gmail.com (LA 디사이플교회 남종성목사)
- 신청 마감: 4월 24일(금) 자정까지
- 신청 자격: 55세 이하의 담임목사, 성도수 100명 이하의 교회
- 정원: 50명
- 모국 방문: 당일(27일) 10명 추천 비행기표 \$500, 한국 체류경비 지원
- 문의: ILP 미주본부 남종성목사 (C. 562-305-4350) LA 디사이플 교회 홈페이지 참조 www.ladchome.com

주최: ILP(I Love Pastor) 미주본부 213-384-3356

· 이석철 교수의 신앙칼럼

평형수 채우셨나요?



이석철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1년 전 세월호가 침몰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같이 침몰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지금도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함께 아파하는 한 국민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교회는 사회를 선도해야 할 책임을 절감하고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물리학적 원인은 복원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급회전을 하면서 기울어진 배를 다시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힘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잘못된 무게 중심에 있었다.

큰 배는 무게 중심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닷물을 채워 넣고 다닌다. 전문 용어로 그 물을 '선박 평형수'(볼러스트 워터, ballast water)라고 한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이 평형수를 아주 적게 채우고 운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실 중측으로 무게 중심이 51cm 높아진 세월호에 대해 행정당국은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를 2023톤으로 늘리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적정 화물적재량보다 3배나 더 많이 짐을 싣었다. 그것도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평형수는 눈속임으로 권고량의 4분의 1만 채우고 출항했다.

세월호는 무게 중심이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태로 처음부터 위험을 안고 바다로 나간 것이다. 결국 급회전으로 인해 한 쪽으로 쏠렸을 때 원래 상태로 복원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 갔다.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사람을 잘 '만드는' 것이다. 배도 잘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을 운항하는 사람들을 잘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갖춰진 사람이 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적합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얼마 전에 14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저먼윈스 항공기 자살 추락 사건도 정신적으로 운전치 못한 부조종사가 저지른 일이었다. 자살 비행 직후 그의 아파트 쓰레기통에서는 찢겨진 의사진단서가 발견됐다. "직무수행 부적합"(unfit for work). 담당 의사의 소견은 그렇게 적혀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출항시킨 선주와 관리자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승객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고 자기만 먼저 살기 위해 팬티 바람으로 탈출한 선장 때문이었다. 결국 이 배의 운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였다.

배의 안전을 위해 그 안에 선박 평형수를 충분히 채워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에는 '사람 평형수'가 적절히 채워져야 한다. 사람 평형수는 내면의 인격이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할 사람은 인격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배와 항공기를 운항하게 해야 한다.

대개 우리는 사람에게서 인격보다는 다른 요소를 중시한다. 신체적 외모나 직위, 또는 '스펙'이라고 하는 능력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보신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외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택할 때 하신 말씀이다.

인격은 사람 내면의 됴됨이로 배안의 평형수와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외모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번에 자살 비행을 감행한 부조종사는 외모가 준수했으며 마라톤을 여러 번 뛴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탁월했다. 스물일곱의 나이에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었다면 능력이 뛰어난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 과거에 자살 충동이 여러 번 있었으며 조종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일반 사회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초가 되는 것도 인격이다.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나 성령 충만 같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람됨과 인격이 먼저 갖춰져야 하며 그 위에 믿음과 성령 충만이 더해져야 한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인간으로서

의 기본 요소인 인격을 무시한다. 때론 신앙을 내세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한다.

안디옥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기록돼 있다. 그가 영적인 자질 이전에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로 인해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고 성경은 증언한다.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 것이지만 그 은혜는 좋은 인격을 갖춘 바나바로 인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인격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을 것이다.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자들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 성숙한 인격을 지닌 성도들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회 각 분야의 일꾼들로 내보내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세상에는 외모가 출중하거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뛰어난 외모와 유능함을 이용해 악한 일을 더 잘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능력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있겠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인격뿐이다. "지도자들의 실패는 90퍼센트가 인격에서의 실패이다." 성공적이던 지도자가 하루 아침에 추락했던 사례들을 분석하면 어떤 연구의 결론이다.

인격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인격이 중요하게 드러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인격은 가볍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배나 비행기를 운항하는 것에서부터 한 가정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까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격, 사람됨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 교회들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보다는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인격자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겠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내면을 항상 들여다보는 사람, 평형수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 말이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치료 받고 진료비는 "감동받는 만큼"

침술과 커피... 썬앤문 아큐카페



아큐카페의 문성재 씨와 홍지선 씨. 이들은 부에나파에 소재한 하나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천이다.

웬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의원과 카페가 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선한 의사를 꿈꾸는 홍지선 씨, 커피를 사랑하는 문성재 씨가 만나 문을 연 썬앤문 아큐카페가 그곳이다. 침술을 가리키는 Acupuncture와 카페 Cafe가 만나 아큐카페 AcuCafe가 탄생했다.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한 잔의 커피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병원은 환자에게 몸과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료비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란 말씀을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문 씨도 유학생 시절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냈던 경험이 있다. 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고 자신이 내고 싶은 만큼의 진료비

를 낸다. 사랑은 나누고 아픔은 두고 가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병원이 유지가 될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 벌써 2013년 5월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다.

이 병원은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성인병, 간·위장·대장 등 한방내과, 불임·난임·출산·갱년기·생리통 등 부인과, 소아과, 비만 클리닉, 미용 클리닉, 교통사고 후유증 등 다양한 분야를 진료한다. 주소) 421 N. Brookhurst St. #106 Anaheim CA 92801 전화) 714-292-7988

문수현 기자

우크라이나 선교 후원 음악회

다음달 3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주님의교회(1747 S. Nogales St. Rowland Hts. CA91748)에서 우크라이나 선교 후원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된다. 음악회 입장은 무료다. 이번 음악회는 최영민 우크라이나 선교사(OC교회회장 역임)를 돕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결성된 단체인 한미우크라이나선교회가 주

관한다. 이 선교회는 올해로 22주년을 맞는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노로스 싱어즈, 보치엘레스티, LA레이디싱어즈, KAM 코랄, 바리톤 장상근, 오토 하프 월드챔피온 최용순과 남가주주님의교회 호산나 성가대가 참가한다.

문의) 562-714-0691

예수마을교회 "무료 영정사진 찍으세요"

예수마을교회가 65세 이상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정 사진 찍어 드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예수마을교회 선교팀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전문 사진사가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과 동일한 품질과 규격의 영정 사진을 찍기에 소

장 가치도 높다. 가격은 무료다. 행사는 4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616 Shatto Pl. Los Angeles, CA90005이다. 미리 전화 213-249-9191(교회)로 예약해야 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dvertisement for Green M. Wild Image Systems featuring Konica Minolta bizhub printers. The ad includes the slogan "Welcome to a better world" an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It lists various printer models (C554e, C454e, C364e, C284e, C224e) and their specifications, such as print speeds and features like dual scan ADF and mobile support. The ad also mentions a trade-in and purchasing program for used printers.

그리스도 안에서 삼시다

골로새서 2:6-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골로새서는 골로새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예수님을 향한 정통한 진리의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불신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격하시키므로 믿음이 허물어지게 하는 폐단이 일어나게 되어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1. 진리 위에 뿌리 내림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 죄악 세상을 배경으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며 살 수 밖에 없는데 교회 주변에, 또 교회 안에까지 이단이 침투해 여러 감언이설로 영혼을 지옥 길에 떨어지게 하려는 마귀적 속임수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진리 위에 바로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단에 휩쓸려 지옥 길에 빠져들고,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싹튼 사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차, 내가 이리다간 자칫하면 지옥 가서 불꽃에 시달리겠구나!' 하며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나라도 진짜로 믿어야지 해서 신앙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들도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굳건해서 항상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심을 따라 땅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 모시고 그 은혜로 살며 하늘 소망의 신령한 기쁨으로 산다.' 이렇게 살아야 감사와 찬송이 그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데, 헬라어 '필레오'(친구간의 사랑)와 '소피아'(지혜)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4절까지 보면 지혜를 두 가지로 확실히 구별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

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도 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들 때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골로새교회에 이런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부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며, 성령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구원의 소망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믿음, 그 자격 갖추게 해 주려고 애간장 태우며 몸부림치는데, 이단에게 쉽게 어울려서 지옥 길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짐

그 철학은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를 친구삼아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좇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신의 성품이 육체로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받아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동정 탄생하심으로 유일하게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그의 육체 속에 충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 기사와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쓰신 증거라고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육신으로 대신 받아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어야 대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 충만하셨듯이 우리도 대속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고 거듭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나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물 속에 잠기는 세례(침례)를 받음으로 옛 사람은 죽었다는 표를 받았습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져서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을 되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세상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물려주실 상속자로 천국을 차지 하러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육체에 행한 할례는 신체의 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육체의 죄악을 일삼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3.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

12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청구하면, 그 회개가 진실했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낸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시키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도, 내 믿음이 범죄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힘들고 더 어렵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지극 정성으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살리시면서 영혼구원의 성과를 위하여 계속 붙들어서 써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단 사설이 감언이설로 그럴싸하게 미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TV 한국 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크리스천 투데이 |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경복 기독교 신문 | 3면 설교 |
| |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TV 미국 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7시 | 목요일 낮 12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40 라디오 코리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 CTS TV | 수요일 / 토요일 |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AM1310 기쁜소리방송 |
| 미 국 신 문 설 교 | | | |
| 기독일보 | 5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
| 크리스천 헤럴드 | 7면 설교 | 인터넷신문 설교 | 오라인 칼럼 설교 |
| |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20회원 인증
 특장: Sevi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석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학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공공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se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류종길 박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USCRC Pastoral Education

US 채플린 목회대학원

USCRC Clinical Pastoral Education(CPE) programs provide an opportunity for ministers, seminarians and lay people to develop pastoral competency within a particular pastoral setting(usually a hospital, parish, hospice or retirement home). The CPE approach to training is based upon an "action-reflection" model of learning. Pastoral trainees function as ecumenical chaplains who provide pastoral care in assigned areas and use their experience in pastoral encounters as a basis for their learning.

USCRC CP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pastoral identity and the growth of professional competence as a minister.

◆ Specific objectives of CPE are :

- To become aware of one's self as a minister and of the ways one's ministry affects people.
- To become a competent pastor of people and groups in various life situations and crisis circumstances and to develop the maturity to provide intensive and extens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To utilize the support, confront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peer group for the integration of personal attributes and pastoral functioning.

1. 미군군목(육군,공군,해군,해병,해안경비대) 예비역 및 현역 후보자 훈련프로그램
2. 병원 원목 자격 취득과정(CPE)
3. 양로병원, 양로호텔경영학 과정
4.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MAVNI) 지원자 시험준비반

*유학생이나 각종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한 분(남,녀)들중 2년이 넘은 분은 소정의 시험을 통해 미군에 입대하고 영주권취득후 미군사관이나 장교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

USCRC Pastoral Education (US 채플린 목회대학원)
본교 151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한인타운 분교 900 S. Westmoreland Ave, #303 LA CA 90006
상담/문의 310-502-9999 (박실장)

담임목사 청빙

창립 38년을 맞이한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Ventura County Korean Presbyterian Church)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속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

- 정규신학교 (M.Div학위이상)을 졸업하신분
- 3년이상 이민목회 경험이 있는 분(Full time)
-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사진포함)
2. 신앙고백과 목회계획서
3.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4. 목사안수증명서
5. 추천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분에 한하여 요청 2부 (밀봉날인과 추천인연락처)
6. 최근 6개월내 실고 2회

제출마감일 :

2015년 5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보내실 곳 :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821 Alta Vista pl. Camarillo, CA93012, djycorp@yahoo.com

기타 :

-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 우편제출시 E-mail주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그 이후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방법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그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외친다. 그렇다. 그 결과 아합왕을 비롯,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 후에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배척하여 엘리야를 핍박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그 비슷한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다름 아닌 주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

게 된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 손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도 만져보았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달라져야 했다. 그 동안의 불신을 탈탈 털어버리고 이제는 죽어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야 당연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몇 차례나 만났던 이들은 21장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이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 심지어 부활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후 또 다시 찾아오는 일상과 현실 앞에 슬그머니 그 교훈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다.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간 그들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삶은 정말 변했다. 그래서 기적보다는 기적 이후가 더 중요하고, 부활보다는 부활 그 이후가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부활의 삶은 지금부터이다.

글씨 하나 차이,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을 큰 물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물주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큰 집, 좋은 자동차, 자녀의 학비 등 보이는 큰 물질을 구한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순서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물질보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마6:31).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마22:37-40). 능력보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시42:1). 건강보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살전 5:16-18).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물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조물주란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을 조물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믿음이란 나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죄는 나와 세상의 주인이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의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결정권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날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식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5-7).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 29:12).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잡아야 할 물주가 있다. 그 물주 이름이 창조자이신 조물주 하나님이다. 그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창 1:1). 조물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이 따라온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조물주를 바라보면 무너지지 않는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믿음'이다. 신약성경에서만만도 헬라어로 '피스토스' - 믿음이란 말이 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 성경에서 '믿음'을 뽑아내고 나면 텅 빈 책이 되고 말 것이다. '신앙인'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신앙인에게서 핵심 정신인 믿음을 빼고 나면 신앙인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나 세상을 물주로 볼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끈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이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안에 축복과 자유가 있다. 예수 믿고 하늘의 축복 받길 소원한다.

생각의 중요성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마귀가 빌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한복음 13:2)." 예수님에 대한 가롯 유다의 배신은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심지어는 악한 마귀도 '생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사회학은 분열과 통합을 생각(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생각이 같으면 급제 하나가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면 분열한다. 역사는 생각이 분열과 통합의 이유가 됨을 증명한다.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거둔 것도 유물론적 사상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했던 '공산사상'이

그 주된 이유였다. 생각이 통일되지 불가능해 보였던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된다. 그러나 그 공산국가에서 '생각의 균열이 일어나자 삼시간에 공산주의 국가들인 동구권의 몰락 사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통합에서 분열로 세포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각은 정신(Spirit)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은 언어와 태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이나 태도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생각을 품는 바로 그 순간이 행동(Action)이 태동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생각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거룩한 생각을 품어야 한다. 또한 성경적 생각을 품어야 한다. 동시에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 생각이 나뉘면 연합은 깨진다. 연합이 깨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유무는 생각에 달려있다. 공동체가 거룩한 생각과 동시에 같은 생각을 품으면 '성정'과 '확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 | | |
|----------------|--|-----------------------------------|
| 발작, 자폐, 무감각 증세 |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 발작 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19년 동안 고생중에 셀라케어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음 | 방세환(20세, 한국) |
| 관절염 · 변비 · 생리통 |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진통제 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고 변비도 없어졌 으며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 황정희(39세, 미국) |
| 중풍 · 마비 · 당뇨 | 15년동안의 당뇨합병증으로 고생 중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얼굴의 마비가 7개월만에 많이 호전됨. | 민명자(65세, 한국) |
| 일본 원자력 피해 | 산천성 뇌하수체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 허반신 마비, 간질, 정신박약, 비정상 성장에서 셀라케어 2개월 복용후 검교 말함. | 토요타 유이토 2세(일본 제바) 090-9934-2333 |
| 자폐증 | 7세 남자아이 자폐증으로 셀라 케어 복용후 호전됨. | 지민 엄마(미국) 616-822-4627 |
| 혈소판 | 3살 반부터 혈소판 수치가 50-29 까지 떨어졌다. 셀라케어 복용 후 한달 반만에 정상수치 (100-400) 로 돌아옴. | 김예은(7세, 미국) 213-798-8767 |
| 방광암 · 임파선암 | 방광암 말기에서 임파선암 타고 전신전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한계방광축출, 1개월시한셀라케어 1년 복용, 암세포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진단. | 나카지마(일본 군마정 다카사키) 080-3556-1951 |
| 간에 생긴 종양 |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없어짐. 참고로 고바야시 어머니가 약사임. | 고바야시(32세, 일본 요코하마) |
| 녹내장 | 오래된 녹내장으로 고생중에 셀라 케어 2달 복용후 안과에서 정상으로 검진됨. | 빅토리아(59세, 일본 동경) 8180-1330-2069 |
| 취장 | 취장에 율혹, 셀라케어 3달 반 복용후 없어졌다고 의사가 진단함. | 58세 목사 사모님(미국 TX) 972-620-2900 |
| 식도염 |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거의 호전됨. 부기, 위장, 변비, 여드름, 피부 모두 효과 봄. | 이은선(미국 MI) 616-822-4627 |
| 간질 | 16년동안 매일 여러차례의 간질로 인해 전혀 사회에 대한 경험을 못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건강이 호전되어 결혼도 함. | Eunice Park(미국) 213-604-1992 |
| 아토피 · 건선 |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지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 Esther Yang(10세, 미국) 213-215-6991 |
| 파킨슨 | 셀라케어를 파킨슨약(Sinemet)과 병행해서 복용하며 떨리는 증세와 몸의 허약함이 반전되었고 50% 줄 아져 18시간 비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옴. | John Kim(미국) |
| 심장 |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분의 권유로 셀라케어 2달 복용후 혈액이 맑아졌고 1년 복용후 수술을 안하게 됨. | Mr. Yoon(58세, 미국) |
| 백혈병 | 직업 간호사로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 검진을 받게 되고 셀라케어를 1달 반 복용후 의사로부터 백혈구 정상으로 진단받음. | Petra(미국) 708-296-2085 |
| 반신불수 · 욕창 | 10년이 넘도록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했으나, 셀라케어 3일 복용후 아들도 알아보고 복용 6달 후부터 물라보게 좋아져 조금씩 걸음. | 박경숙 (82세, 미국) |
| 전립선암 · 부정맥 | 소변 힘들고 방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음. 셀라케어 2달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옴. | Tomas Park (92세, 미국) |
| 심한엘러지 · 하지정맥 |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세우는 고통 중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호전. 심한 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호전됨. | 정수지(61세, 미국) 323-774-1138 |
| 비만 · 우울증 · 아노증 | 어려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LB였으나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살이 빠지기 시작, 현재는 130LB로 유지됨. | Sam Yang(11세, 미국) |
| 자가 면역 질환 | 회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1달 복용후 정상 판정받음. | Mrs. Kwak(미국) |
| 방광암 · 전립선 | 방광암 진단을 받고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깨끗해졌다고 함. | 토요타 이찌로(일본 후지오카) 0903-146-0007 |
| 약물중독 · 우울증 | 햇빛재단(미국) 오네시모 선교센터(미국) | |
| 강아지 백혈병, 피부병 | 강아지가 백혈병과 피부병에 고생 하던중 셀라케어 단 2회 먹인후 치료 필요없게 됨. | 김인숙 213-760-5699 |

건강과 성경 이야기 49

전 세계 인구중 30%의 여성과 남성에게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요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증상으로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가려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 기침 혹은 운동할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경우, 소변을 볼때 시간이 오래걸리고, 소변량도 적고, 소변줄기가 약하며 개운치 않다면 요실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실금의 치료로는 약물이나 골반운동, 전기 자극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치료가 있습니다만 이방법들로는 완치하기 어렵고 또한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들의 전립선 문제는 소변줄기가 힘차지 못하고 날이 흐리면 하리도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잔뇨감이 있어 배뇨를 해도 개운치 못한 것이 대표적이고 또한 하룻밤 사이에도 대어섯 번씩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친다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 소변을 흘리는 등 사람에 따라 한두 가지 혹은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인삼·홍삼, 토마토, 마늘, 복분자, 은행, 녹차, 옥수수수염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이미 전립선과 요실금의 증상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는 잠시 성경말씀을 살펴보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물을 들로 나는 사건을 보면 1.모세가 출애굽 할때 홍해에서, 2.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널때, 3.엘리아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때, 4.엘리아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아의 제자 엘리사가 혼자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건널때 이렇게 4번 나오는데, 오늘은 엘리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이 갈라진 사건들을 보면 출애굽기 14장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3장15절로 케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케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라지게 가가운 아담 음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이려고 앞으로 바로 건너는데 여호와 이 연약케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열왕기하 2장8절 엘리야가 겹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같은장 14절 엘리야의 물에서 떨어진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니 여호와와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 같은장 19절 목척는 물을 먹을수있는 물로 바꾸었고 4장11절로는 기름을 계속나게 해서 죽은 제자의 가족들을 구제하였고 같은장 17절에는 아기를 못나는 사람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었고, 6장에서 위험에 빠진 조국을 구원하였고 4장 42절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일을 엘리야도 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나아만장군의 문둥병 치료방법을 알려주는등 열왕기하 8장까지 엘리야의 행적이 잘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행하거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를 단 기간내에 해결할수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방에서의 약재들의 특징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강력한 약리 작용으로 요금실과 전립선조직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재들의 공통점이 모두 함유된 무순병에 걸렸든지 큰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이고 PH 테스트에서 10점만점을 받은 유일한 영양제입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 | | | | | | | |
|----------------|--------------|--------------------|--------------|----------------------|--------------|----------------|--------------|
| 본사(LA) | 213.435.9600 | 뉴서울호텔 (팔달) | 213.386.5310 |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 714.690.0120 |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 310.619.7758 |
| 시온약국 | 213.382.6485 | LA벌론 마틴약국 | 213.382.9718 |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 714.670.7979 | 뉴욕,뉴저지 | 201.983.8333 |
| LA 아드모아약국 | 213.385.2135 |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 213.388.4100 | 에나하임 | 714.469.5809 | 시애틀 | 206.331.6655 |
| LA 한국마켓약국 | 323.464.3925 | 가주건강종합백화점 | 213.388.0091 |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 909.595.4003 | 시애틀 (건강마을) | 206.229.5466 |
| LA 베스트약국 | 213.385.9926 |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 213.380.5103 | 얼바인 | 949.330.9009 | 센루이스, 캔사스 | 314.570.9629 |
|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 213.384.6323 | 가디나 | 714.351.0440 |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 909.594.6370 | 하와이(생약촌) | 808.947.8086 |
| 에스약국 | 323.733.7788 |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 818.637.7708 | 랜초쿠카몽가 | 909.987.9500 | 시카고 알바니약국 | 847.699.1511 |
|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 323.733.7200 | 밸리 | 818.642.8223 |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 949.251.0193 |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 224.406.0337 |
| LA 다운타운 | 213.798.3333 | 밸리 소망 약국 | 818.832.2757 |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 562.402.8859 |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 770.457.1717 |
|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 213.739.3030 | 오렌지카운티 | 213.247.2244 |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 562.402.6972 | 텍사스 (로얄백화점) | 972.620.2900 |
| LA 6가 버질약국 | 213.384.1200 |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 714.228.9212 |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 562.402.6970 | 플로리다/NC/SC | 770.457.1717 |
| LA 사랑방 | 213.351.9552 |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 714.636.2588 |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 626.839.2868 | 캐나다 | 604.872.1669 |
| LA내쳐영양센터 | 213.739.8874 |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 714.730.2707 | 로렌하이츠 | 626.912.5727 | 세크라멘토/아리조나 | 602.332.6492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이슬람 인구, 2050년경 기독교 따라잡는다”

무종교인 증가와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 등의 영향



기도하고 있는 무슬림 © FIM국제선교회 제공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인구가 2050년 경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5일 연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의 발표를 인용해 “향후 40년간 각 종교 성장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슬람은 높아지는 반면 기독교는 낮아져 두 종교의 인구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2010년 기준으로 무슬림은 약 16억 명이나, 2050년경에는 28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

면 기독교인은 2010년 약 22억 명으로 전 세계 종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50년 경에는 29억 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면 2050년경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이 31%, 무슬림이 30%를 차지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무종교인의 증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역시 기독교 인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특히 서구 국가들 가운데 미국 내 기독교인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2010년에

는 전체 인구의 3/4이 기독교인이었다면, 2050년에는 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무종교인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성인 4명 중 1명이 교회에 한 번도 나가 보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미국인들이 종교에서 멀어지는 주요 원인으로는 성경에 대한 거부감과 교회 내 불신 확산이 꼽혔다.

미국 내에서도 무슬림의 증가는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무슬림은 미국 전체 인구의 2.1%이며, 이슬람이 기독교에 이어 두 번째 큰 종교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유대교나 불교는 합쳐서 1.4%에 불과하다. 무슬림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높은 출산율이 있다. 여성 1명이 출산하는 자녀 수는 기독교인은 평균 2.7명인 데 비해, 무슬림은 3.1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전체의 평균은 2.5명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6년 동안 이뤄진 세계 인구 관련 2,500여 개의 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한 것이다. 강혜진 기자

“대만의 영성을 깨우다”

김장환 목사 대만에서 설교



김장환 목사

목회자 세미나 통역을 한 강신범 목사는 “김장환 목사님의 강연으로 어려운 목회 현실에 힘들어 하는 대만 목회자들이 다시 사명으로 재무장을 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12일(주일)에는 타이페이 한국 기독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타이페이 한국 기독교회는 대만 복음화에 평생을 바친 김달훈 원로목사가 시무한 교회로, 김장환 목사는 한국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끼쳤다.

이 자리에서 김장환 목사는 “한국교인들의 타향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상상하면 가슴이 아프다. 복음에 헌신하며 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말해 현지 교민들을 감동케 했다.

김장환 목사의 이번 대만 방문일정은 대만 현지 목회자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특히,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 진리당 교회는 대만에서 가장 큰 교회로 대만 복음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대만 현지 목회자 세미나와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한 주일 집회에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초청돼 강연을 했다.

10일 타이페이 진리당 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는 대만 현지 목회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목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김장환 목사는 “대만이나 한국이나 목회자의 목적은 동일하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을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현지 목회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슬람 테러단체들 “종교적 사상에 폭력성 내재돼 있어”

美 허드슨연구소 폴 마샬 박사, 알샤바브 테러 관련 지적

케냐의 대학교 테러 사건을 일으켜 1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알샤바브의 폭력성은 이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한 테러리즘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종교자유학자 폴 마샬 박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알샤바브가 이번 테러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 준 폭력성은 이슬람국가(IS)가 그 동안 보여 왔던 잔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코란을 해석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본산인 와하비즘(이슬람 강경주의)에 있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자생 테러 단체인 알샤바브가 나라 밖의 케냐에서 테러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케냐군이 이들 단체를 격퇴하기 위한 전투에 참여한 데 대한 “보복”일 수 있겠지만, 이면적으로는 알샤바브 역시 알카에다나 IS와 같이 영향력을 확산하

려는 야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샬 박사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는 이 단체가 가진 사상이 종교적인 것을 보여 준다”며, “이들은 소말리아 전체를 자신들의 손에 넣기를 원하고 이 일이 성공하면 IS와 마찬가지로 인근 나라들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IS는 지난해 4월 근거지였던 이라크 모술을 장악한 이후에 인근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거지를 확대했으며 인근 국가인 시리아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모술을 탈취한 이후에 ‘칼리프 국가’를 선언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케냐 가리사대학교를 공격한 알샤바브 대원들은 “기독교인들의 부활절을 더 즐겁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테러 생존자들 역시 알샤바브 대원들이 공격 당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가리사대 학생 부회장인 콜린스 웨탕굴라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

뷰에서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샤바브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0건이 넘는 테러 사건을 일으켰으며 총 4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은 케냐 정부가 소말리아에 군을 파견한 해로, 이후 2013년에도 알샤바브는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에서 대형 테러 사건을 일으켜 68명의 사망자와 175명의 부상자를 냈다.

한편, 알샤바브나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등 비교적 소규모의 테러 단체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경향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를 급부상한 IS와의 경쟁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마샬 박사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이들 단체들의 폭력성은 종교적 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손현정 기자

日 시부야 구의회, 동성 커플인정 조례안 가결

세타가야구 비롯해 요코하마시와 효고현까지 영향

도쿄 시부야구(澁谷区)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동성(同性) 커플을 공식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게 됐다. ‘파트너십 증명서’와 관련된 새로운 조례안(条例案)을 3월 31일 시부야 구의회 본회에서 가결한 것. 단,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혼인관계에서 상속은 불가능하다.

가결된 조례의 주된 항목은 ‘남녀 인권 존중’, ‘성적소수자의 인권 존중’, ‘구·사업자·구민의 책무’, ‘남녀평등·다양성사회추진의회 설치’, ‘남녀평등·다양성사회추진행동계획 책정’, ‘파트너십 증명’ 등이다.

‘파트너십 증명서’는 시부야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로서 서로를 후견인으로 인정하는 공적 증서를 제출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증명서 발행은 수 개월 뒤에 될 예정이다. 시부야 구내 사업자인 경우 ‘파트너십 증명서’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동 조례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구에서 ‘시정권고’를 내리게 되고 사업자명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성 커플은, 시부야구가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택에도 입주 가능하다. 무엇보다 동성애자로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구가 인정하는 관계’라는 명분이 생겼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주거 임대 계약 및 병원 면회를 거부당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시부야 구의회 본회에서는 반대도 있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산당, 공명당, 민주당 등은 찬성표를, 자민당의 경우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달 25일 자민당의 ‘가족의 유대를 지키는 특별위원회’에 속한 다수 의원들은 “동성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시부야구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부야구의 조례안 발표 후, 세타가야구 구청장은 “구청장의 판단으로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서류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요코하마시와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또한 시책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강성현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9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Tel: 213-739-1022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9:00 PM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 | | |
|--|--|--|
|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을,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는데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타인선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 36인치로 줄어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삶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그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께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하늘을 여는 예배, 가슴을 때리는 말씀, 애통하는 기도”

4월 25일, 3세대가 함께 하는 ‘파이어 크루세이드’ 연합집회 -- 나침반교회에서 열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한인교회의 경우, 대형교회일수록 젊은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작은 미자립교회의 경우에는 젊은 청년들을 보기 쉽지 않다.

유럽의 과거 대형교회들의 웅장한 건물들이 무슬림들의 손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일반 상업적 용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마치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어두운 밤을 밝히며 길가던 어느 낙심자의 처진 어깨를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던 붉은 생명 십자가는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게 변해가고 있다. 그 사나운 비바람이 유럽의 배를 침몰시키면서 대서양을 건너 이곳 미 대륙으로 몰아다치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떠난 한인교회는 점점 더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5년 후에는 한인교회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오늘날의 교회 안을 들여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 가고 있다. 그런데 왜 젊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 떠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

있다! 그들이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참자유 누림의 기쁨을 맛볼 수만 있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 세계선교를 마무리 짓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는 통로 역할을 할까? 교회 노령화를 우려하는 교회 안의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변해야 한다. 그리고 두 손 내밀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닫힌 마음의 문부터 먼저 활짝 열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을 뿐 결코 열매 맺기가 힘들다.

다행히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서로 소통하며 회복할 수 있는 집회가 열린다. ‘파이어 크루세이드’ 연합집회다.

이 집회에서는 3세대가 함께하며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개하며 변화받아 서로 소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회개할 수만 있다



지난해 12월 새생명오아시스교회에서 ‘파이어 크루세이드’ 연합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성령의 임재는 애통한 기도를 가져온다.

면, 세대간 소통의 교감이 형성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세대 간의 끊긴 다리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돌아 올 것이다.

파이어 크루세이드(FIRE CRUSADE) 연합집회는 그린힐스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기정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현재 여섯 개의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연합하여 헌신해 주고 있다.

이 파이어 크루세이드 연합집회 실현에는 다분히 정 목사의 개인적인 경험이 계기가 됐다. 정 목사는 지난 2000년도, 미국 이민 이전까지만 해도 졸업 불과 몇 달밖에 남기지 않은 전도유망한 치과대학 학생이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단 한 달만에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계획도 뜻도 없었던 미국행을 결행했다. 그것은 기도만 하면 떠오르던 어떤 한 이미지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 없이 울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슴저린 아픔이 정 목사 자신에게 그대로 흘러들었던 것이다.

미국으로 건너온 정 목사는 신학 공부와 함께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며 많은 교회 안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예배 사역을 섬겼다. 그 섬김은 약 6년 간 지속됐다. 그리고 한 가지 강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다면 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등이 있다 한들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만들 수 있어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 목사 자신이 17세에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했듯이, 이곳 청년들이 변화받고 거듭날 수 있

는 유일한 길은 그들 각자가 강력한 성령 체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성령의 역사만이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정 목사는 이러한 확신 속에 지난 2007년부터 ‘자유계 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성령충만 반기를 소원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교회연합으로 진행했다. 그러다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파이어 크루세이드’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연합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올해가 4년째이다. 지난 2014년도에는 마동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까지 마쳤다. 교회 안에서가 아닌 교회 밖에서의 교회 연합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갈구하는 모임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명칭도 바꾸고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청년부 예배팀이 연합하면서 좋은 변화의 열매들이 더 풍성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무런 능력없던 모태신앙의 청년이 이 집회를 통해 변화받고 출세하던 교회로 돌아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여 그 교회의 잠자고 있던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놀랄만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 방황하던 청년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역지로 집회에 참가했다가 강한 성령 체험을 통해 거듭난 후 회

개는 아이티 선교까지 다녀올 정도로 변화를 받기도 했다. 집회가 거듭되면서 정 목사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됐다. 세대 간 소통 부재가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방황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집회가 세대를 아우르는 형식으로 발전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까지 다녀왔다. 크고 작은 연합집회에 초청받아 섬기고 있기도 하다. 오는 4월 25일(토)에는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린다. 이 연합집회는 한 해 2회로 진행돼 오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월 1회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교회를 순회하며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연합집회의 특징은 3세대가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1세대인 김기동 목사(OC교회 회장)가 말씀 선포를, 2세를 대변하는 갓스이미지와 중간 역할자인 파이어 크루세이드 예배팀이 함께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한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을 교회에서 내몰리게 하고 영적으로 아프게 한 점 등을 자녀들에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불

순종한 것 등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막혀 있던 소통의 벽을 허물고 회복하며 축복하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번 집회가 각자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러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 목사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파이어 크루세이드 연합집회가 다저스 구장과 같은 넓은 장소에서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성령집회로 이뤄질 길 기도하고 있다. 또한 세계선교를 마무리할 일꾼들을 길러낼 선교센터 건립도 기도 중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척박하다고 한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파이어 크루세이드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펼쳐가는 연합집회가 존재하는 한 희망은 있다. 성령이 임하면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온 그들은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위해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성령연합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척박한 땅이 다시 옥토로 변하는 부흥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던 무리들이 다시 무리되어 되돌아 올 것이다.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 일정
일시: 4월 25일(토) 오후 7시
장소: 나침반교회(1200 W. Lambert Rd. Brea CA92821)
강사: 김기동 목사
기도인도: 정기정 목사
경배와 찬양: FIRE CRUSADE
위심: 갓스이미지, GIM
문의: 213-505-4292

이영인 기자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텐시브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석사과정 (100% 온라인)
온라인 목회학 석사
신학연구석사
신학연구상담학석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등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사이트: www.mbts.edu/ko

연락처: 816-414-3754, ks@mbts.edu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예수님의 제자훈련

P. T. 찬다필라 | IVP | 1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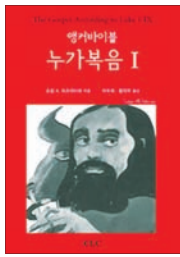
슬로건 대로 '방법' 대신 '인격'에 집중하는 제자훈련 서적이다. 3년간 11명(가롯 유다 제외)의 제자를 키워낸 '위대한 훈련가 예수님'이 가졌던 8가지 자질에 대해 소개한다. 저자는 이 자질들에 대해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의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 자질들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본 요건"이라고 한다. 제자훈련 필독서이자 고전으로, 30년 만의 개정판이다.



앵커바이블 누가복음 1

조셉 A. 피츠마이어 | CLC | 1,344쪽

역사비평적 관점에서 가장 방대한 주석으로, 지난 2천년간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 누가복음 연구 현황과 구성 등을 언급한 후, 1-9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정된 두 자료'설을 사용하며, 누가의 '편집'과 '구성'을 구별한다. 전자는 누가가 전수받은 원래 자료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며, 종종 누가 특유의 어휘나 문체로 확인된다. 후자는 누가가 임의로 구성한 진술을 각각 말한다.



걸어서 성경 속으로

이재욱 | 다할미디어 | 3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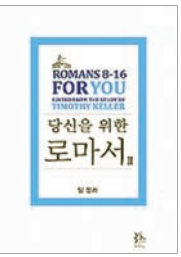
저자는 미 캘리포니아 필리핀교회 선교사로 사역 중이며, 10여 년간 성경 '지리학'이 아닌 '지명학'에 관한 연구를 해 왔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베들레헴과 나사렛, 가버나움과 가이사라 빌립보, 예리고와 예루살렘 성모교회 등 6곳의 지명과 함께, 역사·문화·시대적 배경, 신·구약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스라엘 사역 5년간 관련 서적들을 모았다고 한다.



당신을 위한 로마서 II

팀 켈러 | 두란노 | 352쪽

로마서 1-7장을 다룬 1권에 이어, 나머지 8-16장을 설명하고 있다. 1권이 복음의 진리들을 조목조목 되짚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바울이 5-7장에서 제기한 문제, 즉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다루고 있다. 저자는 기독교의 생명은 지식과 의지가 아니라, 마음에 성령이 거주하고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함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살아낼 것을 권면한다.



REVIEW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속칭 <21세기 찬송가>의 연구서

14살 때부터 찬송가 작사·작곡을 시작하여 찬송가위원회와 찬송가 공회 전문위원으로 주일학교찬송가·어린이찬송가·통일찬송가·신자증보찬송가 등 각종 찬송가 편집을 주관하며 찬송가 연구로 평생을 살아온 오소운 목사가, 80세 노령에 자신의 연구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대작(大作)을 내놨다.

도서출판 성서원에서 출간한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이 그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속칭 <21세기 찬송가>의 연구서라 할 수 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찬

양가>가 발간된 지 100여 년, 우리나라에서 찬송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오소운 목사는 "그러나 대다수가 어느 찬송가는 어느 책에 처음 실렸더라 하는 식이어서, 내 마음에 차지 않았다"고 했다.

오 목사는 "이 책을 쓰면서 인터넷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어느 찬송가가 어느 책에 처음 발표되었다'더라 하는 식이 아닌, '어느 책 몇장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그 악보는 이렇다' 하는 식으로 쓰기 시작하니 자료가 너무 부족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645장이나 되는 찬송



21세기 찬송가 해설 오소운 | 성서원 | 1,086쪽

의 해설을 쓰려다 보니 국내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영어·일어·중국

어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번역해 살렸고, 거기 나오는 책 이름을 키워드로 쳤더니 영미 헌책방에 100년 전 책들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300권 가까이 되는 고서들을 샀다"고 전했다.

오 목사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찬송을 검토해 보니 너무 오류가 많았다.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여 고쳐 나가며 해설하다 보니 너무 방대하여 3권으로 낼까 하다가, 결국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 권에 묶었다"고 했다.

그런데 부피가 문제였다. 1,086쪽이나 되었다. 그래서 얇은 고급 용

지를 써서 두께를 줄여 초판을 출간하게 됐다"고 했다.

오소운 목사는 이제 <한국찬송가대사전>을 집필 준비 중이다. 사전(辭典)은 '언어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벌여 신고 낱말이 그 발음·의의·용법·어원 등에 관하여 해설한 책'이지만, 대사전(大事典)은 백과사전(百科事典, encyclopaedia)이다. 그는 100살까지 살 각오로 방대한 자료에 더 많은 자료들을 사 모아서 <한국찬송가대사전(大事典)>을 펴내겠다고 야심만만한 각오로 오늘도 땀 흘리고 있다.

하석수 기자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10년 설문조사… ‘한국 대학생의 킨제이 보고서’ ”

‘성(性)교육은 성(聖)교육’ 교회가 나서야

“2004년과 2014년 대학생의 성 의식 비교” 논문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우남식 박사(국제신대 교수)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모아 <성심리: 대학생의 성의식>을 펴냈다.

저자는 지난 1997년부터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성(性)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갑작스러운 서구 문화의 대량 유입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 아래 있던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성의식이 급격히 ‘서구화’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에 1999년 ‘청소년의 성윤리 정립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2005년 ‘한·미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및 성교육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은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고찰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연구 주제였다. 저자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설문을 위해 응답지를 봉합하고 10달러 상당의 한국 레스토랑 이용권을 선물하는 등 사재를 털어가며 연구에 힘썼다. 한국에서는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 성의식 변화 추이를 살폈다.

이에 저자는 이 연구 자료를 ‘한국 대학생의 킨제이 보고서’라고 부른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각종 병리현상이 다양한 계층의 사교 저변을 잠식해 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바른 성윤리 의식의 부재 내지는 그릇된 성윤리가 사교의 저변을 형성해 가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근거한 전통적 성규범이 무너지면서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을 상품화해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 기초한 인격적 성의 결합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인류의 기본 단위인 가정과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혼율이 증가하고, 청소년 일탈은 심화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저자가 내린 결론은 이 시대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른 성윤리 정립’에 있다는 것이다. 성윤리가 바르게 정립될 때 생명윤리가 바르게 정립되고, 그제서야 환경윤리 등 모든 윤리가



성심리: 대학생의 성의식
우남식 | 시그마프레스 | 344쪽

정립될 수 있다는 것. 성(性)에서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이다. 목회자인 저자는 서문에서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며 “성(性)교육은 성(聖)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성애 문제도 성 본연의 가치인 ‘생명’의 관점에서 다룬다.

특히 대학생의 성의식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첫째로 질풍노도와 같은 심리적 변화와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이고, 둘째로 생의 주기에 있어 성인기 초기에 해당해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이지만 아직 학업에 전념해야 해 선행동이 허용되는 시기가 아니며, 셋째로 오랜 기간 성적 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당하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던 청소년기를 벗어나 자유분방한 생활환경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적 활동이 어느 시기보다 활발해지고, 넷째로 혼전 성행동과 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낙태), 미혼모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 양육 문제 등 부정적 결과가 많기 때문이다.

책 1부에서는 성(sex)이라는 단어의 배경과 역사부터 시작해 성 연구의 역사와 최근의 경향, 고대·중세·근대 사회에서 성 개념의 변천사, 정신의학·심리학·종교적 면에서 본 성, 고대 사회와 동·서양, 한국의 성 문화 차이,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성, 결혼과 동거와 임신, 성윤리의 중요성, 동성애, 성폭력과 성매매, 성지식·성태도·성행동, 성병, 성교육 등 성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망라해 다루고 있다.

하이라이트인 2부에서는 ‘2004년과 2014년 대학생의 가치관과 성의식 비교 연구’ 연구논문을 전문 게재한 후 결론을 내리고 제언을 하고

있다. 이 설문 결과는 본지에 이미 소개됐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가정 성교육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중·고교에서 성윤리 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성윤리 전담교사를 양성하는 등 성윤리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언론매체에서 건전한 성윤리 정립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성교육을 해야 한다 등을 제언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성경은 성의 기원과 목적, 성윤리 등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반 성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타종교에도 경전이 있지만, 성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신학교에서 전문 성교육 목회자 양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의 성교육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교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제언에서도 나타나듯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자는 “학교에서 성교육 배정시간은 많아 1년에 10시간이고, 그나마 교육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책임 있게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어떤 원칙에 준해 교육하기보다 부모 개인의 윤리적 모범생활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문제는 부모의 윤리 의식 결핍”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학교나 가정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해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에 치중할 뿐, 이미 발생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성교육은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생명윤리를 위해서는 성윤리의식 정립을 위한 성교육이 중요하고, 순결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저자 우남식 박사는 총남대와 인하대, 국제신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겸임교수와 국제신대 상담복지학과 교수로 있다. 다수의 성의식 관련 논문과 언론 기고, <행복학과 자기이해> 등을 썼다. 40여년간 캠퍼스 선교에 매진해 온 목회자로, <마가복음에서 만난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만난 복음>, <로마서에서 만난 복음>, <창세기에서 만난 복음> 등을 펴냈다.

이대웅 기자

복음주의 주석서의 고전 “헨드릭스 신약 주석 개정판”



헨드릭스 패턴 주석 시리즈
아가페 출판사

현대 사회는 세속적 인본주의·뉴에이지·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 등 비기독교 문화와 사상에 잠식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로 무장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이다.

이에 아가페 출판사는 소명의식을 갖고 다년간의 노력 끝에, 복음주의적인 주석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윌리엄 헨드릭스 신약 주석 전 20권(원서는 전 11권) 초판본을 1988년 이미 한국 교계에 내놨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헨드릭스 박사는 로마서 주석 집필을 마지막으로 198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아가페 출판사는 헨드릭스 박사가 미처 저술하지 못한 신약 주석(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유다서, 요1·2·3서)을, 그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주석서를 엄선하여 10권으로 번역·출간, 1988년에 헨드릭스 신약 주석 20권과 함께 전 30권으로 완간했다.

그 뒤 20여년이 지난 2014년, 아가페 출판사는 「헨드릭스 패턴 주석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신약 주석 30권에 대한 재발행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롭게 개정하는 「헨드릭스 패턴 주석 시리즈」의 내용은 1988년 초판본과 동일하게 하되, 기존의 우리말 번역에서 예스러운 표현이나 낯선 한자어는 현재의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순화하여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게 했다.

2014년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개역개정판(4판)」으로 주석서의

성경 본문을 전면 교체하고, 아가페 출판사의 원문번역성경인 「쉬운성경」 본문을 새롭게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인 것이다. 그 결과로 2014년 「베드로전후서·유다서」, 「사도행전(상)」, 「사도행전(하)」를 한국 교계에 내놨다. 그리고 2015년 「요한 1·2·3서」를 시작으로 4월 중에 「요한계시록」을 출간하게 됐다. 「헨드릭스 패턴 주석 시리즈」는 신약 주석 30권 완간을 목표로 계속 발간될 예정이다.

헨드릭스 박사의 신약 주석은 학문적이면서도 깊은 은혜가 있고, 가장 분량이 많으면서도 논리적이며,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흡입을 데 없는 훌륭한 주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헨드릭스 박사의 주석은 본문 비평과 원문 번역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문법·문체·역사적 배경 등을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각 대목의 주석 다음에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전체의 흐름과 결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헨드릭스 박사의 20권 주석 외에 그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받는 나머지 10권의 주석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해석되기를 열망하는 학계와 교계의 조언과 추천을 받아들여 엄선한 것들이다[사도행전(상·하)-F.F. 브루스, 고린도전·후서-찰스 핫지, 히브리서(상·하)-존 브라운, 야고보서(상·하)-토마스 맨튼, 베드로전후서·유다서-J.N.D. 켈리, 요한 1·2·3서-F.F. 브루스]. 이 10권의 주석서들은 각각 영어 문화권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성서해석학자 및 조직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저술했다. 김은애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약이 경혈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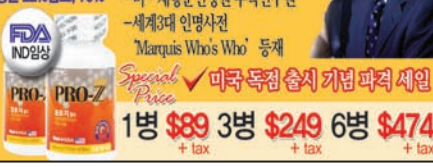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원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향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라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아주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피게 함박스테이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이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김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5th St. Carson, CA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Prayer Meeting Held in L.A. on Behalf of Pastor Hyeon Soo Lim

Condition of Lim, Who Is Currently Detained in North Korea, Still Unknown

BY RACHAEL LEE

Prayer meetings for Pastor Hyeon Soo Lim, who is currently detained in North Korea, have been continuously being held throughout different regions in the U.S., including most recently in Los Angeles. The April 12 prayer meeting was organized by Korea Campus Crusade (KCCC)'s alumni association and took place at the KCCC headquarters near downtown Los Angeles.

Lim, who was confirmed to have been detained in early March, had gone into North Korea through Najin, a town that Lim had visited regularly, on January 30, but was soon taken to Pyongyang by a government official. Since being taken to Pyongyang on January 31, Lim had not been heard from.

Pastor Hun Young Jo, a long time friend of Lim and the lead pastor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Southern California, spoke at the prayer meeting on the passage Acts 12:1-17, a passage in which James is executed by King Herod, and Peter is also arrested and held in prison—but is freed from prison by an angel of the Lord.

"I believe our God who broke Peter's chains and rescued him from prison is the same living God today," said Jo, who knew Lim for 46 years.

Jo also described Lim's passion for the North Korean people.

"Lim is someone who truly understood and gave himself for the pain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o he believed were his brothers, his flesh and blood," Jo said. "He was even planning on retiring from his position as the lead pastor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Toronto, the largest Korean church in the area, to commit fully to ministering to people in North Korea."

He further described Lim as "someone called by God," and someone who is "pure, content with what he has, and always holds on to the Word."

This particular prayer meeting was attended by some 30 people. Jong Sul Park, a KCCC staff who led the prayer meeting, said that he hopes "this prayer meeting would not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and added, "We have gathered with a pure heart to simply intercede on behalf of Pastor Lim."

Those who gathered prayed that Lim would be release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his faith would be unwavering during his time in detention. They also prayed for Lim's family and church, and that the Lord's will be done surrounding Lim's circumstances.

Most of those who gathered to pray for Lim, who is a KCCC alumnus himself, were KCCC alumni, including Young Lee, the director of LA KCCC, and Ezra Kang, the president of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JAMA).

Asian American Faith Leaders to Gather in Washington, D.C. for KCCD's 8th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BY RACHAEL LEE



(From left to right: Ken Kong, Annika Yeo, Younghee Chung, Hyeopin Im, Paul Chang, John Jongdai Park, Timothy Park, and Deborah Kwak.)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will be hosting its 8th annual Lighting the Community (LTC) Summit in Washington, D.C. from May 18 to 20. The summit focuses 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AAPI) Christian leaders to learn how to leverage resources and partner with political and business leaders to better serve the community. Last year's summit was attended by some 180 AAPI leaders.

"We as AAPI Christian leaders have been active through evangelism, global missions, and direct service," Hyeopin Im, the CEO of KCCD, stated. "Yet our voice and presence have been missing at the local and national front due to marginalization and our own disengagement. As a result, our communities have been undeserved and overlooked in

services and resources ... Now is the time to unite our voices, strengthen our influence, and shine our light on America."

This year's summit in particular will be the second time that KCCD and summit attendee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a White House briefing, in which the needs and concerns of the AAPI community will be discussed with White House officials.

"This year, as the second White House briefing, we're expecting see further progress being made for the AAPI community, as the White House is now more aware of our needs, and the organizers are better prepared as well," Im said.

During this year's White House briefing, KCCD hopes to bring up issues such as mental health, small business interests, food service pro-

gram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also advocate for a representative of the White House Office of Public Engagement solely dedicated to the AAPI community.

"I enjoy what KCCD does for the community because everything KCCD does is actually what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API aims to do," said Paul Chang, the Regional Advisor for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API, "which is allocating government resources to the AAPI community."

"Please bring whatever issues you are facing to us, and we'd love to see how the government can help," Chang added.

The summit is also open to students, which KCCD calls 'Young Ambassadors,' who are selected through an application process.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the Young Ambassadors program is also open to high schoolers. About 15 Young Ambassadors were selected last year.

This year's summit will feature speakers including Melissa Rogers from the 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and Grace Han Wolf, Councilmember of Herndon Town Council in Virginia. Others who are part of the honorary committee for this year's summit include Mike Honda, a U.S. Representative for California's 17th Congressional District; and Judy Chu, a U.S. Representative for California's 27th Congressional District.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aapifaithalliance.org.

'Huruma' Benefit Concert Takes Place at UC Irvine to Raise Funds and Awareness of Orphan Crisis in Africa

BY JOOHEON LEE



Bryan Yi (left) and Erica Kim (right) performed at the recent Huruma concert.

On April 12, Beloved International, a ministry dedicated to the work of fighting against the orphan crisis in Africa, held a benefit concer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itled, "Huruma," the Swahili word for compassion.

According to Beloved International, most recent statistics show that almost 5,760 children become orphans each day, and that there are more than 2.1 million children that are orphaned in Africa each year. 5.7 million were orphaned in the year of 2010 alone.

Hence, the ministry holds events such as Huruma to raise funds and awareness, so that even more individuals can be equipped to take action and help alleviate the international crisis.

"Our ministry plans to bring the orphans the hope of spiritual adoption into God's family through the gift of physical adoption into a Christian home," said Benjamin Du, the Development Manager of Beloved International.

One of the directors of Beloved International, Mitchell Kim, also spoke at the event. "Why does God allow suffering in the world? Many of us are here today because Jesus has touched us while we were in pain. God uses pain to draw us to Him; the point of suffering is to bring us to Jesus," he said, and pointed to 2 Corinthians 1:3-7 to explain that suffering is part of life in order that we may draw closer to God.

There were six performances in total at the concert, including performances by: Bryan Yi/Erica Kim, Mary Dao, Tim Ketenjian, Caleb Yu, Ariana Fong/Esther Chu/Abigail

Young, and Orange Garage. Some of the performers were UC Irvine students, and others were UC Irvine alumni and had been asked by the ministry to perform for the night. Such was the case for Tim Ketenjian who was the winner of the first Soulstice, a talent show at UC Irvine; and Orange Garage, a band of post-gradu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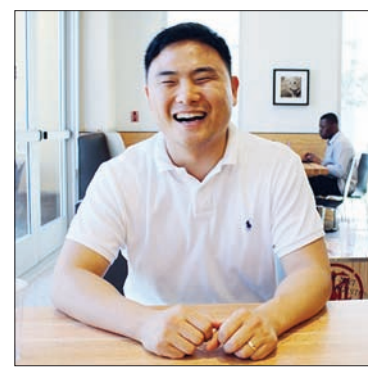
Attendees showed a positive reaction toward the event, such as Michelle Choi, a UCI student. She said the experience was "eye-opening," and that she signed up for prayer requests and to become involved in the ministry.

Caleb Yu, one of the performers and a fourth year student at UC Irvine, said, "It's my third time performing for Huruma, and I wholeheartedly believe in what Huruma does – not just physically adopting orphans but sharing the gospel."

About 80 people attended, and organizers were able to raise \$500 through the benefit concert, all of which will be used to support the families that are physically adopting the orphans in Kenya.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II: "It's All About Relationships"

BY RACHAEL LEE



Pastor Paul Kim leads the English congregation at LA Sarang Community Church.

When asked what advice he would give to other English ministry pastors, Pastor Paul Kim from LA Sarang Community Church (LASRCC) had two things to say: Learn the culture of and develop relationships with the 1st generation; and when it gets hard, don't just leave.

Kim came to LA Sarang Community Church almost four years ago. He initially came not to become the EM pastor, but to simply learn how to be a minister. He took ministry training under the head pastor of LASRCC, Reverend Kisup Kim, for two and a half years.

(Pastor Paul Kim will be referred to as Kim, and Reverend Kisup Kim will be referred to as Reverend Kim.)

"When I started the ministry training, he told me three things to me that he didn't like about many EM pastors. 1) They think of ministry as a profession; 2) They don't try to understand the 1st generation; 3) They know a lot of Bible but they don't know God. When you get this ministry training under me, I can guarantee you that you'll have an experience that you can't get anywhere else." He said that to me looking straight into my eyes.

After hearing that from Reverend Kim, Kim said he started serving in LASRCC with the mindset to learn. Almost every day, Kim would be at church starting from 5 AM for dawn prayer, and come home at 11 PM after doing training and administrative work at the church office.

"Of course, there are times I got frustrated during work, but I'm glad that I went through all the hard work along with all of the other pastors. It's because of this experience that I came to really understand the KM pastors on a deeper level—their families, their struggles, their situations. I know all of the hard work they do and the sacrifices they make even despite those situations. And when I came to understand them better in this way, I also came to respect them a lot more as well."

As Kim became the EM pastor after the former EM pastor had suddenly left, Reverend Kim continuously challenged him to grow. One day, Reverend Kim suddenly asked him to prepare sermons in Korean. Kim said it was difficult at first as a Korean American, but he now preaches several times a year in Korean during dawn prayers.

Not only does Reverend Kim challenge Kim to expand his skill set and

try new things, but he also encourages Kim when he is undergoing hardships, Kim said.

"He always reminds me to look at the bigger picture, of God's sovereignty in everything. So now even when things get rough, I can recognize the seasons and see the bigger picture. I know that it'll pass."

Kim explained that his relationship with the KM pastor is also important in the way that the KM and EM ministries interact.

"It's all about relationships," he explained. "Especially the relationships of the leaders. The KM pastor and I have a mutual relationship of respect, and that says something to the members of our ministries."

He shared that they are thinking of steps to take in order to bridge the gap that KM and EM members may have in their relationship, starting from a church picnic they had last summer in which the two ministries were able to mingle, play games, and have fellowship together.

Having gone through the experiences that he has with the head pastor, the KM pastor, and all of the other pastors in the church, Kim encouraged other EM pastors to build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pastors at church.

"There's a cultural barrier and a language barrier between KM and EM, but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to try to understand where they're coming from. It's the same concept as going on missions to a foreign country – you can't expect them to respect you if you don't respect them and their culture. You have to build relationships, learn their language, and understand the culture."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Survey Finds Two Thirds of the World Religious; Correlation with Geography, Age, Income, and Education

BY PATRICK LEE

Religion continues to pervade societies around the world while varying across spectrums of geography, age, income, and education. WIN/Gallup International published the results of a survey on Monday that revealed two-thirds of the global community still considers itself religious.

"Religion continues to dominate our everyday lives and we see that the total number of people who consider themselves to be religious is actually relatively high," said Jean-Marc Leger, President of WIN/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The poll asked nearly 64,000 individuals in 65 different countries whether they consider themselves: (A) a religious person, (B) not a religious person, (C) a convinced atheist, or (D) do not know/no response." In each country, WIN/Gallup interviewed a representative group of 1,000 men and women.

Out of the roughly 1,000 United States citizens who responded, 56 percent identified as religious persons. 33 percent of Americans considered themselves not religious,

and only 6 percent regarded themselves as convinced atheists.

According to the research, Africa and the Middle East (including North Africa) were the most religious regions, with 86 and 82 percent religious respectively.

Thailand was the most religious nation, with 94 percent of participants associating themselves with religion, and only 2 percent being non-religious or convinced atheist.

Armenia, Bangladesh, Morocco, Fiji, and South Africa were the next most religious countries, with 91-93 percent of participants identifying themselves as religious.

China was the least religious nation, with 61 percent claiming to be atheist, at least twice the amount of atheists in any country that participated in the survey. 29 percent of the Chinese participants identified as not religious, and only 7 percent said they were religious.

Hong Kong and Japan had the next highest rates of atheism, with 34 and 31 percent respectively.

The United Kingdom had only 30 percent of participants identify as

religious, while 66 percent said they were either not religious or atheist. Israel's results were similar, with 30 percent being religious and 65 percent identifying as non-religious or atheist. Polls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recorded 75 percent religious and 18 percent not-religious.

The research also found that those under the age of 34 were generally more religious than those who were older. 66 percent of those under 34 said they were religious, compared to 60 percent of older groups.

Education also played a role in religious affiliation. 80 percent of those who completed only primary school were religious, and religious people made up a majority of all levels of education.

In addition to education, wealth also had correlation with religion. Under 50 percent of individuals with medium high to high income were religious and about a quarter of the higher income participants were atheist. 70 percent of the individuals with lower income identified as religious and only about 5 percent considered themselves atheist.

“2015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교”



"전 세계 20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ABIE

www.pts.edu

모집과정 : 신학사(B.A.), 교역학석사(M.Div.)

※ 온라인 원격강의 개설

| | |
|------------------|-----------------------|
| 2015년 여름계절학기 기간 | 5월 18일(월) ~ 8월 14일(금) |
| 2015년 봄학기 개강 | 8월 24일(월) |
| 2015년 가을학기 원서 마감 | 8월 14일(금) |

모집과정 : ESL 과정

| | |
|------------|-------------|
| 2015년 여름학기 | 5월 4일(월) 개강 |
| 2015년 가을학기 | 9월 7일(월) 개강 |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office@pts.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010-6612-1165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010-9086-2458
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 강우중 교수 (wjkwang@pts.edu)
www.facebook.com/SLCS.EPT

2015년 여름 단기선교를 위한 집중 스페니쉬 반

- 1 스페니쉬 기초반 (기초 지식, 단어 중심 교육) / 주 2일 (화, 목) / 4주 과정
- 2 스페니쉬 회화반 (상황별 대화 중심 교육) / 주 2일 (화, 목) / 4주 과정
- 3 스페니쉬 전도반 (성경 스토리와 찬양 중심 교육) / 주 2일 (화, 목) / 6주 과정

| | |
|------|---|
| 일정 | 5월 5일(화)~9월 3일(목) |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오전반 10:00~11:00, 오후반 1:00~2:00, 야간반 7:00~8:00 |
| 강의로 | 100불(4주과정) |

본교는 입학 및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언제나 친절하게 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구경모 목사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edu / office@pts.edu